

'KREI리porter' 강원지회 간담회 결과

1. 개요

- 목 적: 강원지역 농업·농촌 현장여론 수렴
- 일 시: 2018년 6월 20일(수)~21일(목)
- 장 소: 강원 원주시
- 참 석: 총 12명
 - 강원지회 리porter(10명): 박정숙, 변해동, 송인숙, 심호섭, 유영조, 이윤희, 최락철, 최무열, 최학지, 황윤숙
 - 연구원 관계자(2명): 박혜진 선임주무원, 김미리 주무원
- 주요 일정

| 일 자 | 시 간 | 일 정 | 비 고 |
|--------|-------------|--------|---|
| 20일(수) | 12:00~13:00 | 점심식사 | - 장소: 별천지가든 |
| | 13:00~14:00 | PLS 교육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은경 계장 |
| | 14:00~18:00 | 견학 | - 최락철 회원농가 '최고자연' - 반려견 간식판매 '초록놀이터' - 장성훈 회원농가 '돼지문화원' |
| | 18:00~19:00 | 저녁식사 | - 장소: 송호관광농원 |
| | 19:00~21:00 | 간담회 | - 강원지역 농업·농촌 현장여론 등 |
| 21일(목) | 07:00~08:00 | 아침식사 | - 장소: 송호관광농원 |

2. 주요 논의 내용

- 회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주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의 이해
 - 내용: PLS 관련 동영상 시청, 제도 설명 및 질의응답
 - 강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회 원주시사무소 원은경 계장
 - 대상: 강원지역 리porter 및 현지통신원 20명

○ 회원농가 및 선진지 견학

- 최락철 회원농가 '최고자연'
 -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최락철 회원농가 '최고자연'을 방문
 - 꽃창포를 지역 소득작물 및 경관작물로 육성하기 위해 다랭이 논에 꽃창포를 심고 매년 축제를 개최
 - 꽃창포의 꽃은 초여름에 피고 여름에 지는 습성이 있는데, 6월 중순에 가장 만개
 - 꽃창포 축제에서는 지역민이 만드는 콩국수, 메밀전 등 음식과 꽃창포 에이드, 그리고 천연염색과 야생화 전시, 농산물 판매장 운영 등 식·음·체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
 - 꽃창포의 종류는 300여종으로 식용재배가 가능해 꽃잎을 생으로 또는 차나 청을 만들어 판매
 - 한여름밤 캠핑 등 자체프로그램을 개발, 생산뿐만 아니라 도시민이 찾아오는 농촌체험을 만들고자 노력
- 반려견 간식판매 '초록놀이터'
 - 반려동물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식품업체들이 신성장동력으로 '펫푸드'에 주목하는 가운데 원주시는 지역에서 나오는 건강한 식재료로 반려동물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반려인과 반려견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초록놀이터'를 개장
 - 애완견을 동행하여 음료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며, 이곳에는 펫푸드 전시도 병행,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쿠키, 푸딩, 건조제품과 보양식 등 반려견을 위한 수제 간식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
- 장성훈 회원농가 '돼지문화원'
 - 돼지문화원은 돼지 육종, 인공수정, 사육, 육가공까지 아우르는 지역 브랜드로 소비자시민모임이 선정한 2018년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
 - 약 3.3ha(1만평)의 부지에 건축면적이 1,200여 평에 달하는 규모에

연간 5만여 명이 방문

- 피그레이싱, 동물 먹이주기, 수제소시지·쿠키·머핀 만들기 등의 체험 활동을 접할 수 있으며 돼지교육관, 미니동물농장, 돼지 휴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음.

○ PLS(농약안전사용기준)에 대한 현장여론

- 유영조: 농민도 준비가 안 되었고 기관에서도 안 되었습니다.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갖고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농민들은 무엇인지 모르고 있고 기관에서는 아직 어떤 농약을 사용해야 하는지 정확한 자료가 적습니다. 무조건 등록이 안 된 농약은 0.01ppm이라고 하는데 모호한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제대로 된 농산물 생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검사후의 방안도 아직 없습니다. 폐기를 하고 농가에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은 농사를 못 지을 수 있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정해서 판매를 해야 하는데 납품처에서 검사결과지를 요구하는데 38가지 항목에 검사비만 500만원이 든다. 내년부터 시행인데 부담이 커서 걱정입니다.
- 심호섭: 제일 큰 문제는 현장에서 PLS를 전혀 모릅니다. 유예기간을 두고 집중교육이 필요합니다. 농약이라는 것이 날씨가 좋고 병이 없으면 적게 치고 날이 안 좋고 병충해가 많은 해에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많이 치는 해의 곡물은 제 짐작으론 생산량의 반 정도는 폐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준인 0.01ppm은 무농약 수준입니다.
- 송인숙: 농민들은 고령화가 되어 가는 데 농약병 등에 쓰여 있는 글이 너무 작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용량 준수는 어렵습니다. 농작업을 하는데 농약살포기 등 사용하는데 있어서 용량 등 확인이 어렵습니다.
- 최락철: PLS가 시행이 되고 나면 검출된 농가들도 생길 것이고 생기면 벌금도 내야 할 것이고 이런 사안들을 여론에서 방송이 되고 나면 우리 농산물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것입니다. 제도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점진적으로 개선책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서 국민들이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식품으로서 신뢰도를 잃는 부분은 없어야 합니다.

- 최무열: PLS를 농촌 현장에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과 홍보가 절실합니다.
- 이윤희: 소규모 노년농업인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PLS의 시행으로 부적합을 받을 경우 폐기도 하고 벌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우려가 됩니다.
- 변해동: PLS는 생산자도 교육이 필요하지만 소비자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농산물에 자그마한 흠집이 있어도 구매를 하지 않는데 시행이 되면 무농약 수준의 기준을 어떻게 충족을 시킬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현장여론

- 최락철: 모든 제도에서 농촌이 더 소외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적어 표가 적다 보니 농촌에 대한 정책 자체가 소외되고 있습니다.
- 송인숙: 이번 도로 민원을 내면서 느낀 건데 도심이면 얼른 해결이 될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압적인 태도에 놀랐습니다. 일단 시골 사람이라는 무시하는 태도에 지방분권화가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 이윤희: 지방 분권으로 정책이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공약입니다. 무분별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옆 동네의 가공이 잘되면 모두 가공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한때는 로컬푸드 바람이 불더니 요즘은 가공 공장입니다. 이제는 지방분권이면 현장에 맞는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또 인사권자가 시장군수이다 보니 전문적인 공무원이 없습니다. 또 전문가가 되어 일을 할만 하면 발령이 나서 현장의 농업인이 어렵습니다.
- 유영조: 인사권자가 시군수이다 보니 보조사업을 받아 일을 하는데 담당자가 바뀌어서 힘들었습니다. 농업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오니 현장을 모르니 답답했습니다. 농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농업

공무원이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 최무열: 지방분권이 되면 농업은 더 소외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강릉은 농업인구는 11%이지만 예산은 8%입니다.

○ 강원지역 농업·농촌 현장여론

- 박수정: 된장을 하는데 각 농가마다 모두 최고라고 한다. 발효식품에 기준이 없다. 국가기관에서 가공기준을 정해 농가에 배포해서 기본을 제시했으면 한다.
- 이진수: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인제 오지이다. 아직까지 농사를 짓는데 도로가 잘되어 있지 않아 어렵다. 인구가 적더라도 도로망 구축을 정부에서 해주면 한다.
- 신금영: 토마토를 하는데 울겨울 추워서 기름 값이 많이 들어가서 토마토를 판매해도 기름 값이 안 된다. 거기다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마저 올라서 많이 어렵다. 농사를 포기하려고 했으나 올해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 받은 것을 포기하면 내년에 배정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하고 있다. 4대 보험도 들어주어야 하고 소득은 줄었다. 이렇게 추운 겨울은 이상기후 대책으로 유류비 지원이 있으면 한다.
- 박정숙: 1차로 생산하는 농산물은 가격이 없다. 그래서 배를 생산해서 배즙을 만드는데 규제가 심하다. 위생적으로 생산을 해야 하니 일 년에 4번 검사를 받는다. 받을 때 마다 검사비가 20만원이 든다. 큰 돈이 드는데 농가에 직접 생산가공하는 품목의 위생검사비 지원이 있었으면 한다.
- 최락철: 종자원 품목등록 시 등록비가 지원이 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검사비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검사비등에 지원이 필요하다.
- 최무열: 이런 검사비 등의 문제를 기술센터에서 가공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아니면 OEM방식으로 농가의 가공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 송주희: 이제 결혼한 지 일 년이 되었다.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남편은 다른 일을 하고 대출을 받아서 들기름 가공을 혼자서 하고 있다. 직접 키우고 동네의 수매를 받는데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해서 혼자서 가공업을 하고 농사도 짓고 있다. 출산도우미가 20일 정도 하고 나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 양쪽 부모님도 돌봐주실 형편이 안 되어 아이를 낳는 일을 미루고 있다.

○ 기타 농업·농촌 현장여론

- 박정숙: 요즘 가장 심각한 것이 인력난입니다. 저희 같은 과수농가는 5-6월이 가장 바쁜 시기 인데 농가마다 사람을 못 구해서 한 두명의 인원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 송인숙: 집 앞의 도로의 가드레인을 보강공사를 하면서 기존의 위치에서 왼쪽으로 밀렸습니다. 도로에서 밭으로 내려가는 경사가 45도 정도로 심한데 왼쪽은 도로 밑 절벽이고 오른쪽은 가드레일이 1m 정도 내려온 상황이 되어 몇일 전에 남편이 트랙터를 운전하는데 오른쪽 가드레인에 부딪혀서 트랙터가 뒤집어질 뻔했습니다. 국도유지에 전화를 하니 설계도면대로 시공을 했다고 오히려 사고 나면 책임질 것이냐고 하네요. 현장을 와서 보고 결정하라고 했더니 와서 보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드레일이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농촌의 농로에 대해서 도면설계를 할 때 좀 넓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없어 기계화가 되는데 기계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로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는 곳이 있었으면 합니다. 농민들이 민원을 내고 해결하기 참 힘듭니다.
- 최무열: 농림업의 통폐합이 중요하다. 농산물은 368개이고 임산물을 79개인데 명확하게 구분되는 기준이 없습니다. 표고를 예를 들면 어디는 임산물이고 어디서는 농산물입니다. 이것을 농산물로 통폐합을 하고 임업은 산림치유로 특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유영조: 농업이 차지하는 가치가 낮습니다. 농업은 농산물 생산도 하지만 부수적으로 산소의 생성이라든지 논이 물 가둠으로 홍수 피해 방지라든지 많은 부가가치가 있는데 농산물 생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의 다원적 가치를 올려 줌으로써 농민의 스스로의 자존감을 오려 주는 방안이 생겼으면 합니다.
- 이윤희: 국가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이 심각하지만 농촌은 더한 것 같습니다. 정책은 있지만 농촌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농촌 정책에는 +a가 있어야 합니다. 농촌의 체험농장이 아이들이 없어서 힘든데 도시 아이들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 유영조: 출산 수당제를 높여서라도 아이들을 낳아야 합니다. 농촌의 인구절벽이 심각합니다.
- 최락철: 아동 수당이 있었으면 합니다. 농촌은 저소득 수당이 없습니다. 집도 있고 땅이 있어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생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최무열: FTA 철폐로 보는 이득분에 대해서 농촌의 소농과 임업 등 소규모 분야의 개발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다고 하는데 농촌의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적습니다.
- 송인숙: 저는 닭을 키우는데 도계장이 없습니다. 기반산업도 안되어 있습니다. 기반 산업이 안 되어 있으면 규제라도 풀어서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기반산업도 안되고 규제도 안 풀고 있습니다.
- 현은정(30세 여성농업인): 유기농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년 정착자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독립농가여야 해서 부모님하고 세대주를 분리했었고 많은 필수 교육을 받았습니다.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현실적이지 않아 많이 답답했습니다. 농사만 짓고 살고 싶은데 살수가 없어서 꽃차와 닭을 키우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인허가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1차를 지키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1차도 영망이 되고 그러다 보니 6차인 꽃차의 자립은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 윤세인(송호관광농원 대표): 관광농원을 하면서 여러 보조 사업을 받았

습니다. 여러 개의 사업체인데 돈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초록 놀이터도 받은 것인데 새로운 시도라 염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과 세자여서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농업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농사가 기반인데 돈도 안 되고 빚만 늘어서 걱정입니다.

3. 이모저모

